

# 이야기 만들기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

## Children's theory of Mind in Making Stories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송영주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Lecturer : Song, Young Joo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children show their theory of mind in making stories. Eleven children of age 6, twelve children of age 9, and eleven undergraduates made their stories using the picture book "Frog, where are you?". All of the stories were audiotaped, parsed with clauses, and were coded into mental & para-mental categories.

Results showed that the children used less mind-related terms, like belief, intent, desire, and emotion, than the adults did. And the children talked primarily about the characters' intent of the mind, whereas the adults expressed other mental processes.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age 6 and age 9, in expressing the theory of mind.

**주제어(Key Words):** 마음에 대한 이해(theory of mind), 정신에 관한 표현(mental state term)

## I. 서론

우리는 일상적으로 “나는 맞는 줄 알았는데” 혹은 “그 사람도 날 좋아할까?” 등,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내적 정신상태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정신상태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유아 역시 일상적인 대화(Bartsch & Wellman, 1995; Tardiff & Wellman, 2000; Brown, Donelan-McCall, & Dunn, 1996) 혹은 가장놀이 상황(Hughes & Dunn, 1997)에서 “생각해 봤더니...” “넌 모른 척 해” 등 내적 정신상태에 관해 이야기한다.

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에 대한 이해(theory of mind)(Bartsch & Wellman, 1995; Feldman, 1989)는 경험, 내재적 상태 및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아동의 사고체계를 말한다(Wellman, 1990). 마음에 대한 이해는 유아의 사회인지 발달 분야에서 최근에 다루어지기 시작한 흥미로운 주제이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적인 장면에서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거나 조절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한다. 상대방이 어떤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숨바꼭질 놀이에서 숨래가 엉뚱한 곳을 찾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내가 한 말에 대해 내가 그렇게 ‘생각’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하지 못했어”라는 식의 말을 흔히 사용함으로써 정신에 대한 이해를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러나 매우 일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가 이러한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아는 것(Gardner, Harris, Ohmoto, & Hamazaki, 1988), 상대방의 지식 상태에 따라 의사소통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Robinson, 1981), 그리고 외양과 실제,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구분(Flavell, 1988; Wellman & Estes, 1986) 등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들이다. 특히 사과하거나 인사하기와 같은 관계적인 사회성 측면보다, 타인과 자신의 감정 구분하기와 같은 사회인지적 측면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Lalonde & Chandler, 1995). 즉 사고나 감정, 욕구와 같이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추론해야 하는 이러한 내적 정신상태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Wellman & Gellman, 1992; 송명자, 1995, 재인용)에 의하면 2세 이전의 영아도 다른 아이를 달래는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의 내적 상태에 대한 초보적 표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2세가 지나면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 정서 등 내적 상태를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타인의 욕구에 따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늦게 나타나서 3세가 지나서야 타인의 생각이나 신념을 정확하게 표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실재와 다른 믿음(false belief)에 대한 이해는 만 4세가 지나야 가능하며, 이러한 실재와 다른 믿음을 기초로 타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이보다 늦게 출현한다(Wellman, 1990).

또한 유아와 아동들은 마음에 대한 이해를 묻는 과제 뿐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도 마음에 관해 이야기한다(Bartsch & Wellman, 1995). 실제로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통로로서 Narrative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아동은 이야기 구성에서 허구의 세계를 구성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표상’을 사용해야 한다. 즉 아동은 등장인물들의 의도적 행동, 동기와 감정, 기타 다른 정신적 현상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므로, 이야기 만들기는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줄 수 있다.

Benson(1996)은 인형과 소도구를 이용해서 가작화된 이야기를 꾸미거나, 주어진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제에서 아동의 언어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발화는 지각, 감정, 의식, 기질 등을 포함하는 내적 상태 용어에 따라 범주화되었다. 그 결과 4세 아동은 전체 내러티브중 58%가 내적 상태를 포함한 반면, 5세의 경우에는 79%의 내러티브가 내적 상태와 관련된 표현을 포함하였다. 또한 심리 내적

상태 용어를 포함하는 내러티브중 대부분(75%)은 단순한 내적 상태의 언급보다는 심리적 인과관계의 설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 아동이 정신관련 용어를 적게 사용하는 것은 정신과 관련된 개념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Bartsch & Wellman, 1995). 대부분의 연구에서 4세가 지나면 아동은 실재와 다른 주인공의 믿음을 잘 추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 연구(Bartsch & London, 2000)에 의하면, 6세 아동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고양이를 갖고 싶어하는데, 그 아이의 엄마는 고양이가 가구를 긁어서 사 줄 수 없다고 한다. 이 때 이 아이는 번기 훈련된 고양이와 발톱을 정리한 고양이 중 어떤 것을 엄마에게 제안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아동에게 물었다. 연구에 의하면 이 과제에서 6세 아동 중 반 정도의 아동만이 성공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이해를 실제로 문제해결에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은 이야기를 구성할 때 단순히 등장인물에 대한 내적 정신상태를 "언급하거나 묘사"하기 위해서 정신관련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소년은 슬펏어요' '개구리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어요'와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아동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정신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아동의 추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근접한 구나 절과 관련지어 심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내적 정신상태를 사용할 수 있다. 심리 내적 상태가 결과로 진술된 '개구리가 없어져서 소년은 슬펏어요'와, 내적 상태가 원인으로 표현된 '소년은 화가 나서 개를 야단쳤어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의 동기와 목표를 귀인하고, 이러한 동기나 목표와 행위간의 심리적 인과관계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Trabasso & Nickels, 1992). 따라서 심리 내적 상태를 '설명'에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추론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행동과 상황 설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좀 더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주인공의 이러한 위계적 목표를 다루는 것은 3, 4, 5세에게는 매우 어려우며, 9세가 되어야 이러한 위계적 목표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Trabasso & Nickels, 1992). 또한 심리 내적 상태를 행동의 원인이나 결과로 사용하는 것은 4세와 5세 아동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Benson, 1996). 즉 내적 상태 용어의 언급에서는 연령차가 있어서 5세 아동은 4세보다 더 많은 내적 정신상태에 관해 표현하였지만, 5세 아동은 여전히 4세아와 마찬가지로 이를 심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여 주었다. 어린 아동도 행동의 동기가 되는 내적 상태와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전까지는 가상의 상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내적 정보를 잘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나이든 아동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장면에서 주인공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한 연구(Wood, 1978)를 살펴보면, 행동 설명의 수준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주인공의 행동을 서술하고, 즉각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7, 9, 13세의 모든 연령에서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인공의 내적 상태나 특질에 따라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은 이야기 만들기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사용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을 통해 좀 더 공식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마음에 대한 이해의 표현과 사용에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었다<sup>1)</sup>. 이러한 이유

1) 이러한 이유 이외에, 본 연구에서의 연령 선정은 추후에 이러한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권 아동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로 본 연구에서는 만 5, 6세와 만 8, 9세 아동이 이야기 구성하기에서 보여주는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구성하기를 통해 아동이 마음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아동은 연령에 따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 성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마음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사용하는가의 양적인 접근과,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질적인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재를 구성하는 이러한 능력이, 타인의 실재와 다른 믿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5, 6세 아동 11명과 만 8, 9세 아동 12명, 그리고 성인 집단으로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 5, 6세 아동은 한 유치원의 유치반 학급에서 선정되었으며, 만 8, 9세 아동은 한 초등학교의 3학년 학급에서 선정되었다. 각 연령과 성별에 따른 표집 대상의 수는 <표 1>과 같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Mercer Mayer(1969)의 글자 없는 그림책, "Frog, where are you?"를 도구 이야기로 사용하였다. 이 책은 앞, 뒤의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24쪽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내용은 다음

<표 1> 성과 연령별 표집대상의 수

성별 \ 연령	5, 6세	8, 9세	성인	전체
남	6	6	5	17
여	5	6	6	17
전체	11	12	11	34

과 같다. 한 소년과 개, 그리고 개구리가 주요 등장 인물로, 이들은 함께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개구리가 사라지게 된다. 그 후 소년과 개는 개구리를 찾아 숲 속을 헤매며 몇 번의 모험을 하게 된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개구리를 찾아 돌아오게 된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24개의 장면은 모두 다섯 개의 event로 구분할 수 있다(Berman & Slobin, 1994). 각 event 별 내용과 해당 장면은 다음과 같다.

도입 (장면1-장면3) - 소년과 개, 개구리가 함께 지내다 밤에 개구리가 달아남

event 1 (장면4-장면7) - 개구리 찾기가 시작됨 : 개가 창에서 떨어지면서 개구리가 들어 있던 항아리를 깬다

event 2 (장면8-장면10) - 소년이 땅 속의 구멍을 찾아보다가 두더지에게 물림

event 3 (장면11-장면13) - 개는 자기가 떨어뜨린 벌집의 벌들에게 쫓기고, 소년은 부엉이에게 쫓김

event 4 (장면14-장면18) - 사슴이 소년을 절벽에서 물 속으로 밀어버림

event 5 (장면19-장면21) - 소년이 개구리 소리를 듣고 통나무로 올라감

결말 (장면22-장면24) - 소년이 개구리를 찾고 개구리를 들고 돌아감

### 3) 분석 범주

본 연구의 분석 범주는 '개구리 이야기' 자료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관련 선행연구(Bamberg & Damrad, 1991)를 기초로 구성되었다. 또한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전공한 연구자들과의 수회에 걸친 논의를 거쳐 수정되었다.

우선 '정신(mental)' 범주는, 행위자의 정신상태나 정신 과정에 대한 표현으로 전적으로 '추론'을 통해서만 가능한 표현들이다. 반면 '준정신(paramental)' 범주는 아동이 다른 단서를 통해 어느 정도 정신에 대한 추론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 범주와는 다른 심리 내적 추론인 경우에 해당한다.

선행연구(Bamberg & Damrad, 1991; Benson, 1996)에 따라서는 '자각상태'나, '직간접 화법'의 사용도 행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고려해야

가능하다고 보고 믿음이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같은 정신 범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의 그림을 통해 어느 정도의 외현적 행동 단서를 제공해 주므로<sup>2)</sup> 본 연구에서는 준정신상태의 범주에 넣어 분석하였다. 또한 '감각과 지각'에 대한 이해는 발달적으로 욕구나 믿음 등에 대한 이해에 앞서 나타나며, 좀 더 외현적<sup>3)</sup>이라는 점에서 '정신' 범주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질 설명 형용사'는 추론을 통해 표현되는 심리 내적인 속성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신과정이나 정신상태라고 보기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 범주와 범주 별 반응의 예는 다음과 같다.

#### 4)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은 외국 동화이다. 따라서 그림책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동물과 상황이 우리 아동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말해보고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들(개구리,

개, 두더지, 벌, 사슴, 부엉이)이 아동에게 매우 익숙하고, 주인공이 사라진 구리를 찾는 이야기 역시 일반적인 그림동화처럼 아동에게 친숙한 주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는 대상 아동의 집을 가정 방문하여 일대 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해당 기관의 상황이 녹음에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연령의 대상 아동들이 같은 학급에 속해 있어서 과제의 내용이나 연구자의 추후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공유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야기 구성하기 과정은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방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동의 모든 언어적 반응은 녹음되었다.

본 연구의 검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1) 시작단계

연구자는 아동에게 질문을 통하여 아동의 이름과 연령, 생일, 현재날짜를 녹음하였다.

##### (2) 전체 그림 보기

이것은 본 그림책이 아동에게는 낯선 것이므로, 아동이 실제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연구자는 아동과 함께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아동이 책 내용을 빼놓지 않고 훑어보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아동에게 어떤 언어적 설명도 주지 않았으며<sup>5)</sup>, 아동이 책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 과

<표 2> 분석 범주와 범주 별 반응의 예

구	분	빈도(명)	백분율(%)
I. 정신(mental)			
(1) 이성관련(cold-minded)			
① 믿음과 지식	① 병에 개구리가 있는 줄 알고		
② 의도와 목적	② 개구리를 찾으려고 가고 있는데		
(2) 감성관련(hot-minded)			
③ 정서와 느낌	③ 사슴이요, 화가 나서요,		
④ 욕구와 가치	④ 개보다는 조금 더 좋아 했는거 같아요.		
(3) 기타 : ⑤ 인지정서 <sup>4)</sup>	⑤ 그래서요 놀래가지구요,		
II. 준정신(para-mental)			
⑥ 자각상태	⑥ 깨어보니		
⑦ 감각과 지각	⑦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⑧ 직간접화법	⑧ 쉼하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⑨ 특질설명 형용사	⑨ 그 충성스러운 강아지는		

- 2) 예를 들어, "꼬마가 깨어보니"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장면의 내용은 소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앉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정신을 차려보니'라는 의미의 정신적 자각 상태(awareness)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waking up) 외현적 행동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 3) 감각과 지각의 대상은 좀 더 외현적으로 제시되고 공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준정신 범주에 넣게 되었다.
- 4) 정신상태에 대한 언급이기는 하나, 인지관련이나 감성관련 범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은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에서 이성과 감정의 작용을 비슷하게 필요로 한다고 논의된 반응들을 범주화하기 위한 것이다.
- 5) 예외적으로, 아동이 그림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을 묻는 경우에는 먼저 아동의 생각을 물은 후, 아동의 대답을 인정해 주거나 동물의 이름을 연구자가 알려주었다.

제가 모두 끝난 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였다.

### (3) 이야기 만들기

마지막 장까지 모두 훑어 본 후에, 연구자는 아동이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아동과 함께 책장을 넘기면서,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각 장면을 빼놓지 않고 모두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 (4) 질문하기

이야기 만들기가 다 끝나면, 연구자는 그림책의 맨 처음에서 시작하여 다시 한 장씩 넘기면서 아동에게 질문을 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주인공의 실재와 다른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3쪽과 7쪽에서의 질문은 아동이 해당 상황에 대한 단서를 기초로 주인공의 정서를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4쪽의 질문 역시 확인 질문으로 아동이 주인공의 행위 목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각각의 질문은 해당 페이지의 그림을 아동에게 보여주면서 제시되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쪽 : 이 아이는 개구리가 (단지/그릇/여기)<sup>6)</sup>에서 나오고 있는 걸 아니?

3쪽 : 이 아이는 기쁘니(기분이 좋으니), 아니면 슬프니(기분이 나쁘니)?

4쪽 : 이 아이는 뭐하고 있니?

7쪽 : 이 아이는 기분이 좋니, 아니면 기분이 나쁘니?

10쪽 : 이 아이는 구멍 속에 두더지가 있다고 생각하니?

13쪽 : 이 아이는 나무 안에 부엉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17쪽 : 이 아이는 이것이 사슴뿔이라고 생각하니?

### 5) 자료의 분석

먼저 각 아동과 성인이 구성한 이야기 자료를 절단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절은 마음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 범주의 9개 하위 항목 중 하나로 부호화되었다.

이야기 자료에 대한 절 단위 구분은 국어학 전공자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범주화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의 마음에 대

한 이해를 전공한 연구자의 독립적인 범주화 결과와 본 연구자의 범주화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체 자료에서 연령별로 무선 선정된 30%의 자료에 대해 두 가지 수준에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전체 절 중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한 절에 대한 일치도는 9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범주 항목별로는 84% - 99%<sup>7)</sup>의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분석 범주의 각 항목별로 출현된 절의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개인별로 이야기 구성에 사용된 전체 절의 수에 대한 해당 항목의 빈도점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구성하는 이야기의 길이에 따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산출된 백분율 점수를 이용하여 연령과 성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정신' 범주와 '준정신' 범주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반복 측정된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신에 대한 표현에서 연령에 따라 다른 정신과정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신' 범주에 해당하는 절 전체에 대해 4가지의 하위 정신과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개인별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연령과 성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실재와 다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묻는 4개의 질문에서의 통과율을 연령별로 산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이야기 구성에서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전체 절에 대한 각 범주 항목의 출현율을 연령과 성에 따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에 의하면 마음에 관한 표현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 6세 아동은 전체 절 중 21%,

6) 이야기 만들기에서 나타난 아동의 표현에 따라 결정됨

7) '감각과 지각' 항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 연령에 따른 정신관련 표현 점수

범주 \ 연령	5, 6세	8, 9세	성인	전체
정신	12% (6.36)	14% (7.17)	25% (14.82)	17% (9.45)
준정신	9% (4.18)	11% (5.75)	9% (5.82)	10% (5.24)
총점	21% (10.55)	26% (12.92)	34% (20.64)	27% (14.69)
전체 절의 수	48.55	50.75	63.27	

( ) 안은 출현된 절의 평균 빈도

〈표 4〉 정신관련 표현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범주 \ 연령	5, 6세	8, 9세	성인	전체
피험자간				
연령	.046	2	.023	9.688**
성	.001	1	.001	.596
연령×성	.000	2	.000	.093
피험자내				
범주	.094	1	.094	30.648***
범주×연령	.054	2	.027	8.847**
범주×성	.008	1	.008	2.739
범주×연령×성	.017	2	.008	2.743

\*\*p < .01 \*\*\*p < .001

8, 9세 아동은 26%에 해당하는 비율로 마음에 관한 표현을 사용한 반면, 성인은 34%의 절을 마음에 관한 표현을 통한 이야기 구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범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정신'에 대한 표현은 성인 집단이 두 연령의 아동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5,

6세 아동과 8, 9세 아동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준정신'에 대한 표현은 모든 연령 집단이 비슷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정신'에 관한 이해에서만 성인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정신과정에 대한 선호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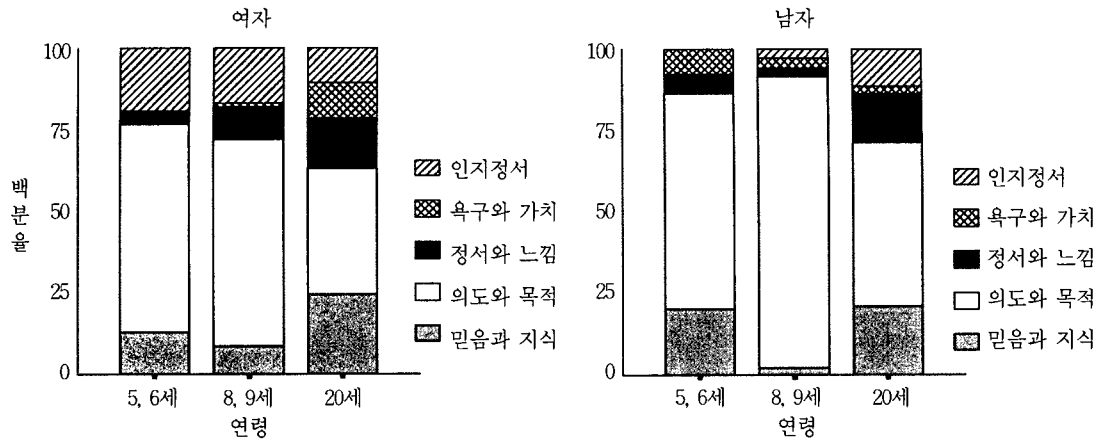
본 연구 두 번째 관심사로 아동과 성인이 서로 다른 정신과정의 사용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 보았다. 즉 '정신' 범주 중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나타내는 하위 항목들이 연령과 성에 따라 서로 다른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정신' 범주에 대해 각각의 하위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과 성인들은 이성과 관련된 정신과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감성이나 인지정서에 관한 표현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을 연령에 따라 비교해보면, 성인 집단은 아동 집단에 비해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더 골고루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들이 정신에 대한 이해의 대부분을 인지적 과정으로 나타낸 데 비해, 성인들은 감정과 정서, 욕구와 가치 등의 정의적 과정도 정신의 한 부분으로 아동에 비해 더 자주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신과정의 서로 다른 사용은 연령 뿐 아니라 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5, 6세 아동을 살펴보면, 남아(87%)는 여아(77%)에 비

〈표 5〉 전체 '정신' 표현에서 각각의 정신과정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5, 6세	8, 9세	성인
이성관련 (cold-minded)	믿음과 지식	15%	77%	82%	82%	67%
	의도와 목적	62%				
감성관련 (hot-minded)	정서와 느낌	9%	13%	10%	8%	22%
	욕구와 가치	4%				
인지정서 (cognitive emotion)	10%		10%	8%	10%	11%
전체	100%		100%	100%	100%	100%



〈그림 1〉 연령과 성별 정신과정의 선호

해 주인공의 의도나 믿음과 같은 이성관련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아(13%)는 남아(4%)보다 많은 감정관련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8, 9세 아동에게서도 나타났다. 즉 8, 9세 여아들(28%)은 같은 연령의 남아들(8%)보다 감정이나 욕구, 그리고 인지정서 등에 관한 언급을 훨씬 많이 하였다.

또한 정신과정에 대한 고려에서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하위 항목인 ① 믿음과 지식 ② 의도와 목적 ③ 정서와 느낌 ④ 욕구와 가치 ⑤ 인지정서인 5가지 부분에서의 반응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8, 9세 아동의 경우 주인공의 믿음과 지식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수치는 5, 6세 아동의 믿음과 지식에 대한 언급이 차지하는 비율(17%)보다 더 적은 것이다. 특히 8, 9세 남아는 주인공의 믿음과 지식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2%), 대부분의 정신에 대한 이해를 주인공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언급(90%)을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두 연령 집단의 아동은 둘 다 이성관련 표현을 같은 정도로 사용하지만(모두 82%), 5, 6세에 비해 8, 9세는 주인공의 행위 의도나 목적을 더 자주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은 아동들에 비해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더 골고루 사용할 뿐 아니라, 남자와 여

자가 정신과정의 선호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성에 따른 정신과정의 선호는 다음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그림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정신과정에 대한 이해는 성별로 다르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는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이성 관련 표현이 줄고 감정에 관한 표현이 늘어나는 반면, 남아는 일관성 있는 발달적 경향을 찾기 어렵다.

### 3) 마음에 관한 언어적 표현은 실재와 다른 믿음의 이해와 관련있는가?

마지막으로 각 연령별로 '개구리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실재와 다른 믿음을 묻는 4개의 질문에 대한 통과율을 분석하였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8, 9세 아동은 5, 6세 아동보다 주인공의 실재와 다른 믿음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연령 집단의 아동은 앞에서 분석한 정신과정에 대한 언급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8, 9세 아동이 실재와 다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마음에 대한 이해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해도 이를 외현적, 언어적으로 더 자주 표현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연령별 실재와 다른 믿음의 이해 통과 누적백분율

연령	문항수	4문항 통과	3문항 통과	2문항 통과	1문항 통과
5, 6세		49% (5)	66% (2)	83% (2)	100% (2)
8, 9세		67% (8)	100% (4)		
성인		92% (10)	92% (0)	100% (1)	

( ) 안은 해당 아동의 수

한편, 주인공의 정서를 묻는 2개의 질문에서는 8, 9세의 한 아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확한 정서추론 반응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의 행위 목적에 대해서, 모든 아동과 성인들이 주인공이 '개구리를 찾기 위하여' 일련의 모험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아동들은 초보적인 마음의 이해는 갖고 있으나, 아동 자신의 표상에서 벗어나 실재와 다른 믿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이 이야기 구성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어떻게 다르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은 성인에 비해 이야기 만들기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더 적게 사용하였다. 즉 아동들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론을 거쳐야만 하는 믿음이나 의도, 정서, 욕구 등의 내적 정신 상태를 성인보다 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이 정신에 대한 이해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한 이유로, 아동이 본 연구의 이야기 구성하기 과제를 설명적(evaluative) 과제가 아니라 서술적(descriptive) 과제로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술적 과제라 함은 등장인물의 물리적 특성이나 주변 상황과 맥락

을 '묘사'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설명적이라는 것은 이야기 등장 인물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두어 등장 인물의 정서나 인지상태, 인과관계절, 직, 간접 화법 등을 사용하여 '설명' 하는 것을 말한다. (Bamberg & Damrad-Frye, 1991) 5세, 7세, 9세와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Eaton, Collis, & Lewis, 1999)에 의하면, 아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이야기 구성에서 설명적 구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인은 이야기의 전반적인 위계적 구조에 관심을 갖는 반면, 아동은 국부적(부분적)인 사건이나 장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Bamberg & Damrad-Frye, 1991)고 한다. 따라서 아동은 이야기를 주인공의 의도나 목표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하여 설명하기보다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을 서술하고 묘사함으로써 내적 상태에 대한 표현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통합되고 응집된 구조를 이용해 이야기를 구성하기보다는, 각 장면을 묘사하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진술함으로써 정신에 관한 설명을 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5, 6세 아동과 8, 9세 아동간에 마음에 관한 이해의 표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9세 아동은 '문해능력이 중요해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이들이 더 어린 아동 집단에 비해 읽고 쓰기에 더 숙달되었음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야기 구성을 위해 마음에 대한 이해를 사용하는 것은 문해에의 숙달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관한 또 다른 설명으로, 8, 9세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동들은 8세에서 11세경에 도덕적 상대론 단계에 접어들는데(송명자, 1995, p. 282), 이것은 아동들이 어떤 행동의 도덕적 판단에서 행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고려하게 됨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기 아동은 다른 정신과정과 함께 '의도'를 고려함으로써 전체적인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이전 시기의 아동보다 발달적인 이득을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8, 9세 아동은 행위자의 '의도'를 과하게 귀인하고 설명함으로써

다른 정신과정을 덜 고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8, 9세 아동은 서로 다른 정신과정 중에서 '의도와 목적'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은 성인보다 정신에 대한 이해를 덜 사용할 뿐 아니라, 이야기 구성에서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덜 골고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정신에 대한 표현의 대부분을 이성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주인공의 의도와 목적을 통해 정신과정을 언급하였다. 반면 성인은 감정, 정서, 선호 등의 다른 정신과정에 대한 언급도 비중 있게 나타나서, 타인의 행동이나 사회적 관계의 설명을 위해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더 골고루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은 등장 인물들의 행동과 상황을 설명하고 구성하기 위해 마음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는 것에서 초보적이고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Wellman, 1985)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인간의 내적 정신상태를 구성하는 변인들을 충분히 '구별'하고 '이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신과정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이를 기초로 외현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은 정신에 대한 이해의 대부분을 등장인물의 의도와 목적을 통해 표현하고, 감정이나 선호, 인지 정서 등에 관한 언급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인간의 많은 행위는 의도를 수행한 결과이며, 이러한 의도성에 대한 이해는 영아기에도 나타난다(Poulin-Dubois & Shultz, 1988). 또한 이야기 구성상 소년과 개가 개구리를 찾아야 하는 '목적과 의도'에 따른 찾기 행동을 전제로 하고, 아동이 이들의 의도와 목적을 기억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 아동은 주인공의 의도와 목적을 좀 더 자주 '외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응집력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스스로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성인은 이러한 '외현적 노력이나 도움' 없이도 주인공의 연쇄적 행동을 잘 설명해주는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서와

감정 등 다른 정신과정에 대한 표현 역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성인은 아동에 비해 인간의 행동을 정신상태와 관련지어 더 자주 설명할 뿐 아니라, 외적 현실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내적 정신과정을 좀 더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에 대한 이해의 발달이 사회적 맥락에서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추론해야 하는 타인의 정신과정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것 뿐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정신과정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동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실재와 다른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 성인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여주었다. 많은 선행연구(Perner, 1991; Wellman, 1990)들은 아동이 만 4세경에 실재와 다른 믿음을 묻는 과제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비록 과제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5, 6세 아동의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실재와 다른 믿음에 대한 이해가 과제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마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다른 질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아동은 성인 못지 않게 주인공의 정서를 잘 추론하고 주인공의 행위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답 반응은 아동 자신의 표상과 일치하므로<sup>8)</sup>,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재와 다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표상을 무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주인공의 표상을 추론해야 하므로<sup>9)</sup> 더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아동은 초보적인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는 성인과

8) 아동은 주인공이 '개구리를 찾기 위해' 일련의 모험을 한다는 것과, 주인공이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므로, 이것은 이야기의 이해만으로도 답할 수 있다.

9) 예를 들어, 아동은 구멍 속에 두더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이러한 지식과는 달리 주인공은 구멍 속에 개구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아동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현적 행동의 설명을 위해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융통성있게 고려하거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표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임으로써 성인과는 다른 마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정신과정의 고려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아는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이성에 관한 표현이 줄고 감정에 관한 표현이 늘어나는 반면, 남아는 일관성 있는 발달적 경향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의 제한된 사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향은 여아가 점차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민감해지고 이를 잘 읽도록 사회화되는 과정에 의해 남아와 다른 정신과정의 선호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설명은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인지적 과제' 이므로 아동의 실제 마음에 대한 이해의 적용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의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거나 놀이 장면에서의 대인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이러한 제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사회인지의 중요한 능력으로, 이러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나 인기도 등의 다른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Bamberg, M., & Damrad-Frye, R. (1991). On the ability to provide evaluative comments: Further explorations of children's narrative competencies. *Journal of Child Language*, 18, 689-710.
- Bartsch, K., & London, K. (2000). Children's use of mental state information in selecting persuasive argu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52-365.
- Bartch, K. & Wellman, H. (1995). *Children talk about the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man, M., & Slobin, D. (1994). *Relating events in narrative: a crosslinguistic developmental study*.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
- Benson, M. S. (1996). Structure, conflict, and psychological causation in the fictional narratives of 4- and 5-year olds. *Merill-Palmer Quarterly*, 42(2), 228-247.
- Brown, J. R., Donelan-McCall, N., & Dunn, J. (1996). Why talk about mental states? The significance of children's conversations with friends, siblings, and mothers. *Child Development*, 67, 836-849.
- Eaton, J. H., Collis, G. M., & Lewis, V. A. (1999). Evaluative explanations in children's narratives of video sequence without dialogue. *Journal of Child Language*, 26, 699-720.
- Feldman, C. F. (1989). Early forms of thoughts about thoughts: Some simple linguistic expressions of mental state. In Astington, J. W., Harris, P. L., & Olson, D. R.(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Cambridge Univ. Press.
- Flavell, J. H. (1988).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about the mind: from cognitive connections to mental representation. In Astington, J. W., Harris, P. L., & Olson, D. R.(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Cambridge Univ. Press.
- Gardner, D., Harris, P. L., Ohmoto, M., & Hamazaki, T. (1988). Japanese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 203-218.
- Hughes, C., & Dunn, J. (1997). "Pretend you didn't

- know": Preschoolers' talk about mental states in pretend play. *Cognitive Development*, 12, 381-403.
- Lalonde, A. M., & Chandler, M. (1995). False belief understanding goes to school: On the social-emotional consequences of coming early or late to a first theory of mind. *Cognition and Emotion*, 9, 167-185.
- Mayer, M. (1969). *Frog, where are you?* New York: Dial Press.
- Miller, P. H., & Aloise, P. A. (1989).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causes of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60, 275-285.
- Perner, J. (1991).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Cambridge, MA: The MIT Press.
- Poulin-Dubois, D. & Shultz, T. (1988). The development of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From agency to intentionality. In J. W. Astington, P. Harris & D. Olson(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inson, E. J. (1981). The child's understanding of inadequate messages and communication failure: A problem of ignorance or egocentrism? In W. P. Dickson(Ed.), *Children's oral communication skills*. New York: Academic Press.
- Küntay, A., & Nakamura, K. (1993). *Evaluative strategies in monologic Japanese and Turkish narratives*. Paper presented at the 6th International Congress for the Study of Child Language, 18-24, July 1993. University of Trieste, Italy.
- Tardiff, T., & Wellman, H. M. (2000). Acquisition of mental state language in Mandarin-and Cantonese- speaki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25-43.
- Trabasso, T., & Nickels, M. (1992). The development of goal plans of action in the narration of a picture story. *Discourse Processes*.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The MIT Press.
- Wellman, H. M., & Estes, D. (1986). Early understanding of mental entities: a reexamination of childhood realism. *Child Development*, 57, 910-923.
- Wellman, H. M., & Gelman, S. A. (1992). Cognitive development: Foundational theories of core domains.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 (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Vol. 43).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Wood, M. E. (1978). Children's developing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motives for behavior(Brief reports). *Developmental Psychology*, 14(5), 561-562.

(2002년 9월 30일 접수, 2002년 12월 3일 채택)